

서호인의 '소설처럼'



살아야 한다 -현호정, '단명소녀 투쟁기'

습작기의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설픈 결말은 주인공의 '죽음'이다.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많은 작품에서의 죽음은 논외로 하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장대하고 기구한 서사를,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가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방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보다는 역시 삶의 어느 순간을 포착해, 거기에서 생애 전반의 의미를 비추어 보는 것이 좋은 소설의 요령일지도 모르겠다.

좋은 소설에서 주인공은 쉽사리 죽지 않는다. 바깥 말해 소설가는 주인공을 쉽게 죽이지 않는다. 주인공은 어떻게든 살아 내려 한다. 어떻게든 살고자 한다. 주로 이 '어떻게든'이 소설의 결정적 장면이 된다.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살아 내려는 삶에서 죽음은 일종의 회피다. 좋은 소설은 삶의 진상을 피해 돌아가는 법이 없다. 죽지 않고 살아 그것을 끝까지 돌파하려 할 것이다.

현호정의 소설 '단명소녀 투쟁기'는 죽음을 죽여, 삶을 찾고자 하는 이야기다. 죽음을 돌파해 삶에 도달하려는 소설이다. 주인공 수정은 그저 임시 고민으로 찾아간 점집에서 반신 무당인 '복두'로부터 스무 살이 되기 전에 단명할 운명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이에 대한 수정의 대답은 간결하고 단호하다. "싫다면요?"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남동쪽으로 계속해서 걸으라고 복두는 말한다. 그 길은 '북방산을 등지고 걷는 길, 차갑고

딱딱한 달 대신 따뜻하고 무른 해를 향해 가는 길'이다. '전 생애에 걸친 길'이기도 하다. 수정은 묻는다. "버스 같은 거 타도 되는 거예요?"

소설의 모티프는 '북두칠성과 단명 소녀' 등의 고전 설화다. 본디 수정은 먼 곳으로 가는 길 앞에서 현대 문명의 이기인 버스를 떠올리는 현대의 소녀였지만, 죽음을 죽이려 가는 길에서는 구비 전승된 이야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환상적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곳에서 사자만큼 커다란 개 '내일'의 등을 타고 이동하고, 삶 대신 죽음을 택하고자 하는 동료 '이안'과 함께하게 된다.

그들의 여정은 현실에 발 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명부'와 '이계', 동물의 등을 타고 이동하는 설정, 눈(目)-모가-허수아비의 형상을 한 괴물들, 논리적 전개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의 연쇄 그리고 삶을 지속하기 위한 연명담... 현대소설에 익숙한 독자라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형식이지만, 이야기 자체에 매력을 간파하는 감각이 있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형식이기도 하다.

옛이야기를 변형 또는 차용한 듯하지만, 작가는 최신 서사 기법을 활용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다. 수정과 이안이 명부의 등을 해결해 나가며 더 강한 상대와 맞닥뜨리는 설정은 롤플래잉 게임의 기본 설정을 닮았다. 작은 섬에서의 정체 없는 모험은 던전(주로 온라인

게임에서 몬스터들이 모여 있는 소굴)에서의 길 찾기와 다르지 않다. 구전 설화와 현대 게임이 뒤섞인 서사 전략에서 주인공이 찾는 것은 삶과 죽음이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의 방식과 가장 최근의 스토리텔링 기법이 만나 독자 앞에 철학적 질문을 부려 놓는다. 수정의 대답은 역시 단호하며 간결하다. "두렵고 싶지 않다. 떨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운명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단명소녀의 투쟁기는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오는 기이한 모험담이자 전 생애에 걸친 걸음걸음이 된다. 이 이야기를 이끄는 힘은 소정이 가진 삶에 대한 의지이다. 죽음으로의 매혹이 아닌, 삶으로의 의지가 이야기를 이야기롭게 한다. 현실에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본인의 인생과 행적으로 집필한 이야기의 끝을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 끝맺으려 한다. 그러한 죽음은 그의 이력을 불기소 처분하게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은 그의 인생을 허무 맹랑한 절벽으로 내뿜는다.

죽음은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책임이 되겠지만 타인에게는 최대한의 무책임이자 비겁함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렸든,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삶으로서 죽음을 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삶에 대한 뒤 죽음을 순간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운명에 복속할 자유가 생길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라도.

의료칼럼

어린이 충치



지명관 조선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영구치(어른 치아)에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유치(어린이 치아)는 우식이 생겨도 치료받지 않고 교체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들이 많다. 심지어 치과 의사들 중에서도 유치는 치료하지 않거나 임시 재료로 막아 놓은 뒤 나중에 발치를 권유하는 의사들도 많다. 물론 환아의 구강 내 상태에 따라서 바람직한 치료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유치를 이러한 방법으로 진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치아우식증은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가장 중요한 치과 질환이다. 유치에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은 그 자체로 통증, 심상장애 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치아의 치질을 변형시켜 악궁 공간의 상실을 발생시킨다. 이는 추후 맹출해야하는 영구치의 올바른 배열을 방해할 수 있다. 즉 유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는 영구치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면 그 치아들 사이의 접촉

점이 무너지게 되고 치아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줄어든다. 이로 인하여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때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구치(아이 어금니치아)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유구치 인접면 우식증은 치과의사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 치아 사이의 충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치에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의 인접면 우식증은 이미 치아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자 외층인 법랑질을 지나 그 안의 법랑질보다 조금 더 무른 상아질의 깊은 부위까지 침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미 치아 안쪽의 조직까지 우식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심해진 충치는 치아 중심부에 있는 치수(일반적으로 '신경'이라고 말한다)에 염증을 일으켜서 치수 치료(신경 치료)를 필요로 하게 한다. 따라서 인접면 우식증이 의심된다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오차를 줄이고 조기에 우식을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의 우식은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다. 영구치에 비해 2배 정도 빠른 우식 진행 속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아주 심한 충치의 경우 부종을 일으켜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고름이 위쪽은 눈으로부터 아래쪽은 목 부위까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면 고열을 동반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 시대를 고려했을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꼭 이렇게 심각한 응급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유치의 뿌리는 영구치의 치관(머리 부분)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유치의 뿌리 쪽에서 퍼져 나간 염증이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구치의 색이 변하는 것부터 심한 경우 물혹 등을 생성하여 영구치의 맹출을 방해함으로써 매복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유치의 치아우식증을 방지하고 영구치부터 관리를 잘 해주겠다는 보호자의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입안에 머물고 밥을 먹으며 발음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치를 더 이상 방지하지 말고 소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호자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훌륭한 치료와 치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래의 치아만큼은 못하다. 어떠한 훌륭한 수복물이라도 할지라도 수명이 있으며, 한번 수복이 이루어진 치아는 다시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 다른 치료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호자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치아를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칫솔질을 잘하는 것이며, 식이 조절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치아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한다면 이런 충치의 발견으로 아이들의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다.

기고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과제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리학박사

지난달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을 비롯한 서천갯벌,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 2007년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사 연구를 시작해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19년에서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지난 5월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장 실사와 패널 회의 및 검토 끝에 '반려' 권고를 내렸다. 한국의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한 자연 서식지의 가치가 인정되지만, 신안갯벌을 제외하고는 지형학적·생태학적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갯벌의 범위가 넓지 못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 지역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완충 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재 추진단, 시민단체 등이 외교적 노력과 유산 구역의 확대 약속, 세계환경단체의 지지 확보, 지역사회 협력 유도 등에 함께 노력해 15년 만에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갯벌은 지형학적·지질학적·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유산이지만,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전통 지식에 기반해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를 계승해온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갯벌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지닌 복합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남해안에 광활하게 발달되어 있는 갯벌은 지난 산업사회에서 농지, 산업용지, 도시용지 등의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대상지로 여겨 왔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대규모 간척은 제한되었지만 갯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산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들은 앞다퉀 갯벌 생태관광에 골몰하고 있다.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갯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 등재 결정을 내리면서 첫째 2025년까지 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둘째 유산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을 관리하고, 넷째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해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상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또한 갯벌의 퇴적 환경이나 생물 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파제와 방조제 축조, 해양자원 및 에너지 개발, 과도한 수산양식, 해양폐기물 배출 등은 보다 철저한 영향 평가를 거쳐 추진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갯벌을 보전하고 이용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에 7개소를 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동시에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 '리버풀-해양무역도시'의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했다. 리버풀이 워터프론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초고층 빌딩, 대규모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을 건설해 등재 당시의 가치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리버풀은 오만의 '아라비아 영양보 호구역',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에 이어 세 번째로 지위를 박탈한 사례로 남게 됐다.

'한국의 갯벌'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글로벌한 시각과 기준으로 갯벌의 보전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지혜를 결집해야 할 때이다.

社說

우럭·전복 등 잇단 폐사...피해 최소화 대책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 해안의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해상 양식장의 어패류 집단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고수온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악의 어패류 피해를 냈던 3년 전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함평 면에서 시작된 올해 고수온 현상은 평년 수온을 5도 이상 웃돌며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30도를 넘나드는 고수온으로 지난 8일까지 전남 17개 양식 어가에서 138만 4000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해 1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에서는 우럭 137만 마리와 전복 4000마리, 완도에서는 넙치 1만 4000마리가 폐죽음을 당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달 폭우로 인한 전복 폐사 등 700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으니 앞선 데 덧붙인 격이다.

어패류 폐사는 특히 여수 기막만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90% 가까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평년 24.3도에 머물렀던 가막만의 수온이 최근 30도를 오르내릴 만큼 뜨거워진 탓이다. 문제는 어패류 폐사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9·10일에도 폐사 신고가 들어와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육지와 달리 바다는 기온이 단번에 꺾이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데다 이달 말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수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고수온이 43일이나 지속됨으로써 전남 해역에서만 5400만 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했던 2018년 못지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식 어가에서는 추가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 산소나 산소발생기 등을 이용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는 어민들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업 급여’는 회사가 배푸는 시혜가 아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갑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를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하고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 자발적 퇴사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정리관(머리 부분)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유치의 뿌리 쪽에서 퍼져 나간 염증이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구치의 색이 변하는 것부터 심한 경우 물혹 등을 생성하여 영구치의 맹출을 방해함으로써 매복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광주·전남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 2019년 6만533명, 2020년 6만9204명으로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회사의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불리한 뒤 사측이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노동청에 거짓 보고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A씨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사측이 이직확

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측의 '갑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이 사업주에 계만 부여돼 있다 보니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발급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사측의 실업급여 갑질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이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양측의 이직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을 사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실업급여는 회사 측이 배푸는 시혜가 아니다.

無等鼓

어린 시절엔 누구에게나 특별한 이유 없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나에게도 웬일인지 육교를 건너는 일이 그 중 하나였다. 문제는 학교에 가려면 육교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횡단 보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빙 돌아가는 게 귀찮았다. 그래 육교를 오르면서도 그때마다 "다음엔 꼭 횡단보도로 가자" 마을먹곤 했다.

두려움은 고학년이 되어서야 사라졌다. 하지만 저학년 때는 얼마나 힘들었던

교통사고로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는 '교통사고 줄이기' 및 '학교 앞 육교를 세워 주자'는 캠페인을 전개했고 정성이 답지했다. 당시 전남일보 기자들을 비롯해 평범한 시민과 학교·기업 등에서 700원부터 50만 원까지 정성을 보냈다. 여기에 전남도 예산까지 더해져 중앙초와 양동초 앞 거리에 육교가 설치됐고 이듬해에는 수창초·계림초 앞에도 들어섰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교통 약자 이용 지 TV에서 봤던 소머즈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나 원더우먼이 돼 육교 때 철거된 중앙육교를 위를 날아가는 꿈도 자주 꾸곤 했다. 아저씨들 대신할 횡단보도는 이날 설치된다. '사연' 많은 1

육교의 추억

이 작은 박스에 넣고 팔던 병아리도 육교 하면 떠오르는 풍경 중 하나다. 시간을 되돌려 육교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 건 얼마 전 52년 만에 철거된 중앙초등학교 앞 육교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1969년 설치된 중앙육교가 광주 최초의 보행자 육교라는 것도, 시민들의 성금으로 설치돼 '사랑의 육교'로 불렸다는 사실도 최근 광주일보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자동차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1969년 4월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뺑소니

호 육교이다 보니 육교 이야기를 담은 작은 안내문이라도 설치하지는 의견도 나오는 모양이다. 광주 토박이들은 누구나 중앙 육교를 이용했을 터다. 어린 시절 중앙초등학교에서 자주 놀곤 했던 나 역시 이 육교를 수시로 오르내렸다. 사실 최근에 이용하면서는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며칠 전 육교가 철거돼 뺑 뚫린 도로를 차로 달리자니 팬스레 아련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32	예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52	체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